



# “물러설 수 없다” 제주 무승 탈출 선언

오늘 하나원큐 K리그1 2022 21R 성남과 격돌  
공수 조화 속 경기력 회복... 구자철 교체 멤버

침체에 빠져있는 제주유나이티드 (이하 제주)가 썬퍼 성남FC를 상대로 반전을 꾀한다.

제주는 8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2 21라운드에서 성남과 격돌한다. 제주는 최근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낮은 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졌다. 지난 5일 김천에 0-4로 대패한 것

을 비롯 강원예 2-4로, 대구에 0-1로 패배하는 등 원정 3연패를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홈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가다가 내리 2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5경기를 살펴본 결과 제주는 공격에서 6골을 기록한 반면 수비에서는 12골이나 내줘 수비진이 붕괴된 것을 알 수 있다.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역습에 의해 실점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는 이에 따라 홈에서 흐트러진 전력을 추스려야 한다.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수비력을 바탕으로 화력의 세기를 더해 나가는 기본전술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민규의 득점포 재가동과 ‘K리그 제이미 바다’ 김범수의 활약이 보태진다면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남과의 이날 경기에 제주의 레전드 구자철이 교체멤버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반전 카드로 최적인 셈이다. 제주는 성남전에서 완승을 거둔 뒤 상승세의 포항과 경기에서 승점확보를 통해 한숨을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제주에 맞서는 성남은 더욱 절박

한 상황이다. 올 시즌 단 2승에 그치고 있다. 승점은 12로 11위인 수원삼성보다 8점이나 뒤처져 있다. 성남은 직전 경기인 포항과의 대결에서 4골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경기에서는 상대와 비등한 실력을 펼쳤다. 다만 승부처에서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서 무승부 경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의 입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승수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야말로 양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결과에 따라 한 팀은 상승세로, 상대 팀은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윤기자



제주 강성훈 침착 6일 (현지시간) 미국 쉐타키주 니컬러스빌의 킨 트래이스 골프클럽 (파 72·7328야드)에서 PGA 투어 바바솔 챔피언십에 앞서 열린 프로암 8번홀에서 제주출신 강성훈이 침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과 맞대결 ‘울스타’ 선정  
K리그1 구단별 2명씩 24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쿠판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홋스퍼와 맞대결에 나서는 팀 K리그 선수 24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골키퍼에는 베테랑 김영광 (성남)과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울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에는 총 8명의 선수가 발탁됐다. 전복에서는 국가대표 김진수와 지난 시즌 MVP 홍정호, 수원에서는 이기재와 불투이스가 각각 선발됐다. 정태욱 (대구), 김동민 (인천), 박승욱 (포항), 김지수 (성남)도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는 총 10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먼저 경기력과 팬서비스 모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FC 이승우가 이름을 올렸다. 또 강원에서는 김대원, 양현준, 서울에서는 팔로세비치, 조영욱 등이 선발됐고, 신진호 (포항), 엄원상 (울산), 권창훈 (김천), 이명주 (인천), 제르소 (제주) 등이 뽑혔다.

공격수는 총 4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주민규 (제주)와 조규성 (김천)이 이름을 올렸다. 세정야 (대구)와 라스 (수원FC)도 팀 K리그 공격진에 무게를 더한다. 조상윤기자



## 체육회장 후보등록 의사 제출 기한 변경

도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부평국)는 7일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은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12월 15일 동시에 치

러짐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과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개정된 사항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유강남·조용호 팬 서비스 MVP  
‘KBO FAN FIRST’상 공동 수상

LG의 유강남과 KT 조용호가 팬들을 향해 빛나는 서비스를 한 주인공으로 뽑혔다.

KBO는 리그 출범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KBO FAN FIRST (팬 퍼스트)’상의 6

월 수상자를 선정, 7일 발표했다.

6월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유강남은 2016년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가 팬 김지은 군에게 역으로 사인을 부탁하며, 배트를 내밀고 이름을 써 달라고 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어린이가 팬에게 본인의 실착 모자를 선물하는 등 약 7년 간 꾸준한 팬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용호는 어린이날 플레이어 에스코트 이벤트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팬 박시우 군이 이후 경기장에 재방문하자 팬을 알아보고 사인 배트를 선물하는 팬 서비스를 수행했다. 또 해당 경기 직후 있었던 구단 유튜브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해당 어린이가 팬이 와줘 좋은 기운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팬 퍼스트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상윤기자

## 제주삼다수 1라운드 전승 “가자”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수원서 격돌  
미리보는 챔피언전 제주-춘천 리그 첫 대결

4년 만에 휠체어농구리그 정상탈환에 나선 제주삼다수가 상승세를 이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오는 9일 경기도 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1라운드에서 춘천시장에인체육회와 격돌한다. 이어 10일은 대구광역시청과 맞붙게 됐다.

제주삼다수는 앞서 지난 6월 17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리그 개막전에서 코웨이를 60-51로 제압한데 이어 이튿날 고양홀트를 75-43으로, 19일엔 무궁화전자에 75-52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다.

이에 따라 제주삼다수는 내심 1라운드에서 5전 전승의 승전고를 울릴 심산이다. 팀의 기동인 김동현은 3경기를 치르는 동안 평균득점 26.0, 평균 리바운드 13.7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 첫 고비가 닥쳤다. 올 시즌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춘천시장에인체육회가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장에인체육회

는 국가대표 포워드 주득점원인 조승현과 센터 김강열이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제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제주삼다수를 상대로 78-5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엔 고양시장배 제27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창단 3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의 전력을 뽐내고 있다. 다만 올 시즌 리그 1라운드에서 무궁화전자에 67-68로 일격을 당하며 주춤거렸다.

제주삼다수와 춘천시장에인체육회는 서로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측불허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양 팀의 중심인 김동현과 조승현이 막힐 경우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활약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제주 원정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승부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제주올레 5코스 시작하는 마을

제주 남원

용암해수욕장

개장

7월 16일(토)

“ 지하 60m천연 용암해수를 끌어올려 조성한 제주남원 용암해수욕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개장시간** 주중 11:00~17:00 토·일 10:00~18:00

**해수욕장 (064)764-8080 남원1리마을회 T.764-0181, 9181**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